

2. 2011 ~ 2013년생 (남,녀 공용)

안녕하세요. 리틀보이스 12기 오디션에 응시하는 000 입니다.

내레이션

유럽 남부의 발칸 반도까지 참 먼 길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에 도착, 다시 한시간 반 차를 타고 코토르에 왔습니다. 멀리 디르하르 알프스산맥에서 뿜어나온 산줄기가 땅 끝까지 이어집니다. 북유럽 피오르드만큼 아름다운 절경의 코토르만. 저는 지금 몬테네그로라는 나라의 코토르라는 해안 도시에 와있습니다. 몬테네그로의 뜻은 몬테는 산 네그로는 검은색이라고 합니다. 산을 보니까 정말 검은색의 산에 둘러싸여 산과 바다의 조화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드리아의 중계 무역으로 번성했던 베네치아 공화국의 유산이 가득합니다. 중세의 전설같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코토르. 베네치아 양식의 건축물이 많습니다. 골목마다 고양이가 눈에 띄는데요. 19세기 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함대가 들어왔을 때 수병들이 키우던 고양이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연기

도대체 뭐야.. 정말... 아.. 힘들어. 아, 미안 늦었지. 무섭지는 않았어? 들켰네. 오는 길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을 봤거든. 어? 아 맞다, 알바비...아.. 내 5만 원... 미안, 배고프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잠깐만 기다려. (이곳저곳 찾아본다) 어? 학교에서 짜장면 나왔다고? 엄청 맛있었겠네. 정말로?? 그래도... 으이그. 알았어. 잘 자. (문 두들기며 (나)를 부르는 소리) 어? 네 안에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엔 진짜 정말이에요. 아빠가 돈 보내주겠다고 저한테 약속했어요. 네 진짜 연락하고 있어요. 여기 통화기록도 있어요. 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꼭 보내드릴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괜찮아.. 내일은, 정말 내일은 조금 나아지겠지.. 아빠...